

#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자율성



이 장 무 | 서울대학교 총장

## 이장무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대한기계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미국기계학회 펠로우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대학교 제24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상훈으로는 '2005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이 있으며 번역서로 『동역학』 등이 있다.

**최** 근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미래와 방향, 국제적 경쟁력 등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우리 대학교육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동력으로서 사회 다른 분야의 성장과 개혁을 선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개혁을 선도하기보다 오히려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두고, 정부에서조차 대학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대학의 위상과 역할이 변하는 것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지식과 가치가 공존하고 상응하는 다면적, 다원적 현대 사회에서 대학이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려면 인문과 자연, 기초와 응용, 물질과 정신을 서로 교합시켜 새로운 지식을 융솟음치게 하는 융화의 원리가 촉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대학은 학문 분야 상호 간의 장벽, 대학과 사회와의 장벽, 국가와 국가 간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지적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개방은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 더 넓은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의 인재들에게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사고와 다문화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이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세계의 인재들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활동하고, 우리의 인재가 세계의 대학과 연구기관, 세계 기구와 기업과 산업현장을 누비도록 해야 한다. 즉 대학교육 혁신의 중심원리는 '융화와 개방'이다.

융화와 개방의 시작은 기본을 튼튼히 하고 그 기본을 토대로 급격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진정한 적응력은 바로 기본의 강화로부터 시작된다. 대학이 다방면의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심층적 사고와 다각적 사고, 그리고 이질적인 요소들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어야 한다.

또한 대학교육의 개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내실있는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영어강의, 국제 학술교류와 협력, 외국인 학

생 수의 증가 같은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학이 몇몇 있지만, 우리 대학 전체로 볼 때 국제화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화를 위해서 대학들이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늘려나가는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

대학은 또한 지역과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로 남아 있을 수 없으며 교육의 혜택을 지역사회에 나누어줄 수 있도록 실천적인 지혜를 배양해야 한다. 대학교육이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사회에 대한 봉사과 기여 없이 대학의 역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대학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공급하고, 그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을 길러주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성에 관해 개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자율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난 1월 연합뉴스 보도에서 밝혀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공교육비가 고등학생의 경우 1995년 178만 5천 원이던 것이 2006년 587만 3천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으나 대학생의 경우 422만 7천 원에서 763만 2천 원으로 1.8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우리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과 대학 운영에 있어서 재정 충실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대학교육 발전의 비전과 그 실천 방안에 대한 협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자문에 응해 왔고 학문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각 대학의 특성과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평가방법을 국제기준에 상응하도록 그리고 사회와 기업의 요구에 합당하게 개선하여 평가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소속 대학 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대학교육 전체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실질적으로 공헌하기를 기대해 본다. **대학교육**